

그들이 있어 또 가고 싶은 성보박물관



◇송이·기호 가족에게 팔상성도를 설명중인 김혜진 보살.

“저 관세음보살님은 손이 왜 저렇게 많아요?”

1월 25일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찾은 기호(포항 양학초등 5)와 송이(포항 양학초등 3) 오누이는 불교회화실에 전시된 불화들을 둘러보며 궁금한 게 많다. 아버지 김규만(43) 씨가 아이들의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불교회화실 안내 봉사자를 맡은 김혜진 보살은 아이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한다.

“관세음보살님은 손과 눈이 천개란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나 고통을 해결해주는 분이어서 송이가 잘 지내나 항상 지켜봐야 하고, 또 송이가 슬플 땐 송이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나까 많은 손과 눈이 필요하란다.”

송이의 눈은 빛나기 시작한다. 어린이법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처음이다. 옆에 있던 기호가 부처님 일대기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하자 김보살의 대답이 이어지고 가족들의 박물관 관람은 부처님의 일생, 불화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오랜 시간 이어졌다.

“너무 감사해요. 자원봉사를 하

바라밀현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시는 분들 덕분에 아이들도 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김규만씨는 자원봉사자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www.tongdosamuseum.or.kr)은 입구의 신발 정리부터 안내, 전시실 유물 보호 및 유물 설명 등의 봉사를 실천하는 1080여명의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보시, 지

10여명의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박물관 개관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문화자원봉사회는 6개월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지만 활동이 계속될 수록 스스로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절감하게 돼 많은 봉사자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의 박물관대학에 등록,

1080 회원 6개 부서로 나눠 하루책임

불교유물 이해 부족 절감, 안내가 곧 공부

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로 나뉜 6개 부서에 모두 27개 조가 있는데 매일 한 개조의 10~15명의 봉사자가 박물관의 하루를 책임진다. 오전 9시엔 부산, 울산, 양산 등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예불을 시작으로 관람객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마친다.

이날 봉사를 맡은 조는 인욕부의 10조. 박물관 입구의 신발 정리를 맡은 서강순(52·양산), 이귀출(62) 보살, 기획전시실의 하정희 보살, 기증유물실의 김혜순 보살을 비롯

공부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다.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는 박물관 대학 수업은 3년째 계속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의 열기는 대단하다.

‘이는 것만큼 보고, 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에게 알려주려 노력하겠다는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이 이를 꿰뚫어 주는 배움과 정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055)382-1001

통도사=천미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케마 스님 (上)

비구니계 단합시킨 사키야디타 창시자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과 온마음일 뿐입니다.”

비구니계를 최초로 단합시키고 국제 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야디타(Sakya dhita: 붓다의 딸들)를 창시한 케마 스님(Ayya Khema: ‘아야’는 스님이란 뜻). 남들이 은퇴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며 손자 볼 생각을 할 5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던 케마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되풀이 하며 일러주었다.

원인 ‘메타 비하라’를 잇달아 창건했다. 스님은 또 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개최해 ‘사키야디타’를 창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같은 해 파라푸두와(Parappuduwa) 여성 수도원 설을 설립해 서구 여성들이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 수도원 설을 설립할 때 비구 스님들과 거사들은 ‘해적들이 습격해 강도와 강간을 일삼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케마 스님은 너털웃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999년 입적할 때까지 남방불교의 수행전통을 세계에 전한 스님은 자신이 설립한 독일의 붓다 하우스에서 입적하기 전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 (放下)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드라마틱한 당신의 삶 굽이굽이에서 맞닥뜨린 난제들은 바

“여기 있는 서양 여성들은 토박이해적들보다 체구가 두 배는 큰걸요.”

늘 살고 아픈다는 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법문을 설한 케마 스님은 ‘법(Dhammal)은 모국어로 설해져 명확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과

‘붓다 하우스’ 등 서구 여성 수행 터전 마련

쉬운 법문으로 투병중에도 열정적 전법 퍼



◇케마스님

로 자신을 가르친 자애로운 스승이었다는 회고도 곁들였다.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 1979년 스리랑카의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스님은 1978년부터 호주 시드니의 ‘붓다 담마 사원’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콜롬비아의 국제불교여성센터, 89년 독일의 붓다 하우스, 97년 독일 최초의 산림 승

정에서 진리의 정수가 흐려져서 안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전법자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사회적인 공인을 얻고자 할 때 해탈로 이끄는 법은 빛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사회적인 욕구에 영합한 희석된 불교는 부분적인 진리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극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명상을 가르치면서도 진리의 본질을 더욱 완하게 드러내었던 스님의 영여 및 독일이 저술은 25종에 이르고, 이중 일부분은 7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스님의 주옥같은 문체는 87년 출간된 책 <비움(Being Nobody, Going Nowhere)>으로 ‘크리스마스 험프리상’을 받은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스리랑카와 독일, 미국 등을 오가며 전법여행을 펼치던 케마 스님은 노년에 딸이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자주 방문해 명상을 가르쳤다. 천구인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법사가 머물며 위빠싸나와 삼차부 불교를 가르치던 ‘사막의 불교센터’에서 스님은 유머를 곁들인 환한 설법으로 위빠싸나를 지도해 수행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계속)

김재경 기자



김혜진 봉사회 10조 총무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가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하심하는 마음이

키우고, 또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 불교문화를 배우니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자원봉사회 1기 김혜진(52·부산 연산동) 10조 총무는 봉사회의 활동을 봉사가 아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정진이라고 표현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모르고 있던 불교문화의 가치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도 있

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김 총무는 봉사회 활동이 행복하기만 하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찬탄하는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기 때문이다. 김 총무를 비롯한 권영명을 훌쩍 넘긴 회원들은 오랜 세월을 이어온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예술작품을 보존하고 현대에 계승하는데 열의를 담당한다는 자긍심으로 봉사와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오즘 들어 기공이나 단을 연마하는 단체와 수련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수련을 하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정신 안정과 체력 향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불교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들이 종종 들어온다.

얼마 전 한 사이트를 접속해보니 불교는 성(性)만 두고 명(命)을 두는 방법은 없으니 반쪽공부이고, 선도(仙道)는 성과 명을 함께 두으니 완전한 공부법이라는 글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이란 마음을 가리키고 ‘명’은 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공부만 할 뿐, 몸을 길러 주지 않게 하는 공부는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완성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이다. 선도에도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신을 허로 돌리는 것에 해당되고, 명은 정과 기를 기르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몸과 더불어 마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

을 버리고 따오이 영생을 얻으려는 ‘유생무벌’을 통해 도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태어난 자가 죽지 않으려는 것은 누구나가 지닌 본능이므로 누구나 오래 살기 위해서 갖기 몸부림을 친다. 기독교의 구원이

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법을 몸에서 찾지 않는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몸에서 두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버려서 몸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 집착이 없음으로 인해 나고 죽어야 할 몸을 다시는 받지 않는 것으로써 ‘성명쌍수’의 완성을 이룬다.

완전한 성명쌍수는 자기라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깨달음에 있지 몸을 오레도록 세상에 붙잡아 두는 도에 있지 않다. 단학이나 선도를 건강의 차원에서 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적연(유아선원장)

마음비추기

몸·마음에서 벗어난 깨달음

대개 정(精), 기(氣), 신(神)을 기본으로 정을 길러 기를 이루고 기를 길러 신을 이룬 다음, 신을 허(虛)로 돌려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도와 합쳐되는 수행법이다. 이들이 성명을 두는다고 할 때 성은

법은 어리석은 길로서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참된 도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버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무생무벌’을 이룰 때 얻어지는 것인데, 저러한 수행법은 죽을

나 선도에서 말하는 신선도 결국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해서 만든 집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생사의 굴레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조차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외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갖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감나무식당 아래 (전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조용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 불계대원 고추전구, 인제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조용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들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들에 꼭 필요 합니다. (견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32) 582-6235-6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 2266-2634
구입문의 (02) 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철포동 389-43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계승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적삼, 바지 : W140,000 동방, 바지 : W160,000 두루막 : W140,000
	적삼, 바지 : W130,000 동방, 바지 : W150,000 두루막 : W130,000
	적삼, 바지 : W220,000 동방, 바지 : W240,000 두루막 : W200,000
	적삼, 바지 : W170,000 동방, 바지 : W190,000 두루막 : W170,000
	조끼, 바지 : W60,000 ~ W65,000
	W200,000 ~ W250,000
	적삼, 바지, 조끼 W200,000 동방, 바지 W19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 전화로도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이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망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포함)